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육상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영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한 문승유과 관계자를 모습.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특별상 등을 수상한 전남체육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생활체육 성장…대한민국 스포츠 메카 우뚝”

2025 전남도체육회 결산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으로 열린 전남체육’을 비전으로 정하고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왔다. 특히 공정, 육성, 화합, 소통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씬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경기력 향상과 대회 운영, 체육 행정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창출하며 전남체육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한 해를 완성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올해 전남체육을 되돌아본다.

공정·육성·화합·소통 4대 가치…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우수성적·국비 공모사업 성과…엘리트·동호인 체육 선진화 실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전남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4년 제53회 소년체육대회에 이어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내 3대 메이저 종합체육대회를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3개 대회의 총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926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전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 도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체육이 도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가치 이면서 건강, 교육, 복지,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전문·생활체육인의 성장
전남 체육인들의 경기력 성과 역시 뛰어났다.

올해 2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역대 최고득점인 373점을 획득하며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종합 7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개최지 가산점 없이도 종합 2위를 달성함과 아울러 성취상 1위, 경기력상 2위,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에 전남의 이미지와 도민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미래 체육 인재 육성 성과도 뚜렷하다.
꿈나무 선수들의 무대인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5개 종목 97종별에 748명의 선수가 참가해 52개의 메달(금 13·은 13·동 26)을 획득함과 동시에 수많은 대회신기록·다관왕·다연패 선수들을 배출하며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연계육성과 신규 팀 창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49개 종목 179종별에 참가해 174개의 메달(금 45·은 50·동 79)과 종합

득점 2만8770점을 획득하며 전 대회 대비 메달 수를 5개 늘리는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체육 행정 경쟁력 강화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총 19건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체육 선진화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개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도내 스포츠클럽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역시 유치했다. 그 결과 3000여명의 타 시·도 체육인이 전남을 방문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도 넓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완도군이 농어촌형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순천, 담양, 화순, 진도군체육회가 총 4200만원의 전국 최다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했다.
이에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0여 년간 끈질긴 건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2026년부터 7개 시·군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증원 배치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이는 단기간에 이뤄진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현장 수요를 제도화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증원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결정적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전남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생활체육 기반 확충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체육은 활동 무대를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로까지 확대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체육인간의 교류,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과의 우호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경의 경계를 떠나 하나 되는 체육으로의 면모도 살려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25년은 전남체육 성과에 있어 양적 확장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도약의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2026년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체육인이 함께 만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2일 광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광주시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창초 이강욱과 광주제일고 김성준이 광주 야구소프트볼인들이 뽑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

수창초 이강욱·광주제일고 김성준 ‘최우수선수’

수창초 류창희·광주제일고 조윤채 ‘최우수감독상’ 수상

수창초 이강욱과 광주제일고 김성준이 광주 야구소프트볼인들이 뽑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2일 광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광주시야구소프트볼인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환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 및 회원단체장 등 100여 명의 야구소프트볼 관계자와 체육인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광주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선수, 지도자 등에게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부문별 시상에서 앞서 공로패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제일고등학교 이규연 교장에게 수여됐다. 또 감사패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회장 겸 부회장 김창승(대로그룹)·강혜정 협회 이사

(일곡88정형외과)·하태형 협회 부회장(썬수산업)에게 각각 전달됐다.
최우수심판상은 이근 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 위원에게 돌아갔다.
이어 최우수감독상은 류창희 수창초 감독, 조윤채 광주제일고 감독이 차지했다. 우수감독상은 정재열 송정동초 감독, 신경호 대성초 감독, 고전주 송원대 감독이 선정됐다.
최우수선수상은 이강욱(수창초)과 김성준(광주제일고)이 수상했다. 우수선수상은 김도환(송정동초), 유민우(대성초), 김범준(송원대)에게 주어졌다.
최우수타격상은 올해 타격 1위를 기록한 서석초 양데오(44타석 34타수 20안타 타율 0.588)와 진흥중 임재영(51타석 41타수 24안타 타율 0.585)이 수상했다.
우수타격상은 대성초 윤제하(47타석 36타수 18

안타 타율 0.500), 동성중 박정민(49타석 41타수 23안타 타율 0.561)에게 돌아갔다.
김성환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광주 야구소프트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5 야구 유·청소년클럽리그(i-League)’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LEVEL 1(엘리트) 12세 이하부에서는 송정동초가 우승, 대성초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LEVEL 3(유·청소년클럽) 12세 이하부에서는 광주운암유소년야구단이 우승, 광주YMCA 유소년야구단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LEVEL 3(유·청소년클럽) 13세 이하부에서는 광주운암유소년야구단이 우승을, 사단법인 동강공공스포츠클럽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각 선수 팀에는 배트와 메달이 전달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서석중, 전국중·고 검도대회 단체전 ‘동’

준결승서 성남중에 1-2 석패…허경도, 개인전 우승

광주 서석중학교 검도부가 올 시즌 마지막 전국 대회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서석중은 지난 21일 경남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서석중은 예선에서 조치원중과 경남 문화중을 각각 3-2로 제압하며 안정적으로 출발했다. 8강전에서는 강호로 평가받던 대구 동평중을 4-1로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서울 성남중과 맞대결을 펼쳤다. 산봉 권민과 2위 권순현이 비기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고, 중견 문율과 부장 오승현이 아쉽게 패했다. 이어 주장 허경도가 마지막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투지를 불태웠지만, 최종 스코어 1-2로 석패하며 3위에 만족해야 했다.
개인전에서는 주장 허경도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허경도는 예선부터 전진욱(다송중) 2-0, 김현진(진주중앙중) 2-1, 이서안(동평중) 2-0, 김태

경(세류중) 2-0, 이상민(광명중) 2-0, 사공민찬(성남중)에 2-0으로 연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조보민(순천왕운중)을 2-0으로 제압했고, 결승전에서도 김한울(갑천중)을 2-0으로 꺾으며 개인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재경 서석중 검도부장은 “정동진 교장선생님과 문영희 교장선생님께서 평소 훈련 과정부터 대회 출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학교의 신뢰와 격려가 올 한 해 출전한 모든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2학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체력·기술·멘탈 훈련을 더욱 체계화해 2026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서석중 검도부는 최근 경남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